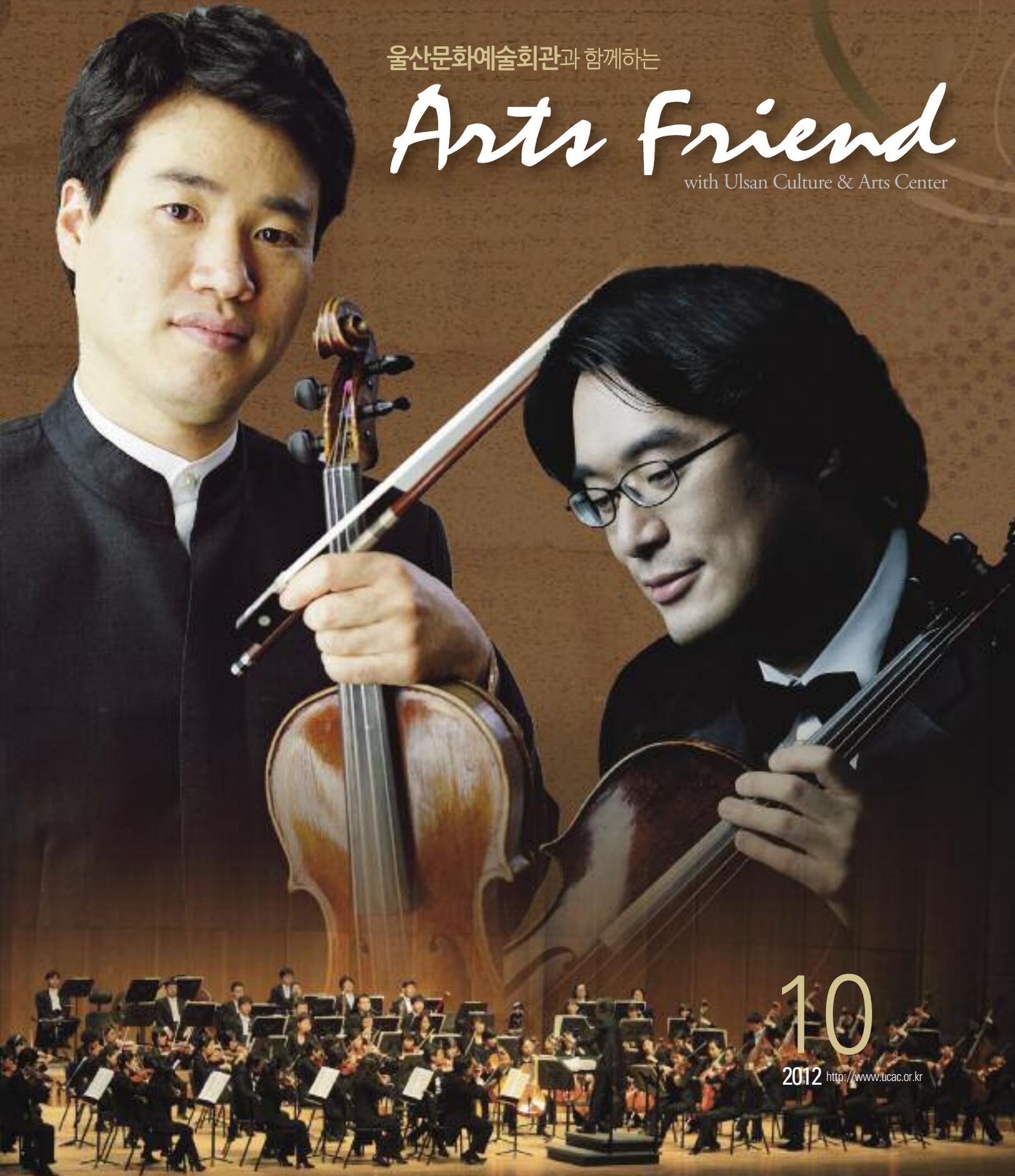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10

2012 <http://www.ucac.or.kr>

OD Musical Company presents

뮤지컬  
기린 <sup>애</sup> 하이드  
울산공연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

2012년, 4개월 간의 전국 투어

대한민국 1%의 선택! 전회 기린박수의 신화!

2012년 12월 29일(토)~30일(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가격 VIP석 110,000 R석 90,000 S석 70,000 A석 50,000 공연시간 토 3시, 7시 30분 / 일 2시, 6시 30분

공연문의 및 예매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 [www.ucac.or.kr](http://www.ucac.or.kr) / 275-9623

주최 ▲ 울산광역시 주관 ▲ 울산문화재단 (주)OD 울산문화기획사 세타 OD연극문화재단 m.net

Created by the song by Simon Caber & Frank Wildhorn / Lyrics by Leslie Bohmer / Music by Frank Wildhorn / Choreography by Kim Schanzberg  
Arrangement by Jason Howard / Libretto by David Swick



COVER STORY |

울산시립교향악단의 2012 명작시리즈 여섯 번째 순서는 독일의 낭만주의 작곡가 '슈만'이다. 이번 연주회에는 울산시립교향악단 지성호 악장(바이올린)과 연세대학교 김성진 교수(비올라)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의 화려하고 환상적인 연주를 선사할 예정이다.

# Contents

The Monthly Magazine of Ulsan Culture & Art Center

- 04 ■ 시립예술단 공연**  
 [교향악단] 제160회 정기연주회 '슈만'  
 [합창단] 제78회 정기연주회 '2012 울산의 노래'  
 [합창단] 해설이 있는 '푸치니 오페라의 밤'  
 [무용단] '나는 무용수다Ⅱ'
- 10 ■ 기획공연**  
 전수경의 'Touch The Musical'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 13 ■ 예술을 말하다**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  
 파리 빌레트 공원과 음악도시  
 오페라의 역사 V  
 피터르 브리헬 1세의 <추수하는 사람들>  
 슈만과 클라라의 위대한 사랑
- 30 ■ UCAC는 지금**  
 '처용문화제' 이모저모
- 31 ■ 10월의 공연·전시**  
 공연·전시 가이드  
 10월의 공연·전시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 10월호 | 통권 제158호

- 발행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달동 413-13)  
 T. 052)226-8241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 발행인 / 과상희 ●편집인 / 안종철
- 기획·편집 / 김현욱, 박용운, 박영진, 권혁민, 김내영
- 디자인·제작 / 동방디앤피 T. 052)266-8500

# 슈만

[울산시립교향악단 제160회 정기연주회]  
2012 명작시리즈 V

울산시립교향악단  
2012. 10. 19(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연 바이올린 지성호(울산시립교향악단 상임악장)  
비올라 김상진(연세대학교 교수)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슈베르트 | 로지문데 서곡

모차르트 |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내림마장조, 작품 364

슈만 | 교향곡 제3번 '라인강'

####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제160회 정기연주회

##### 독일의 낭만주의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

오는 10월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제160회 정기연주회는 김홍재 예술감독 겸 지휘자의 명작시리즈 여섯 번째 순서로 독일의 낭만주의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제3번 <라인강>(작품번호 97)이다. '라인강'은 알프스에서 발원하여 북해로 흘러드는 유럽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하천이다. 스위스·리히텐슈타인·오스트리아·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를 거치지만 독일을 흐르는 부분이 가장 길기 때문에 예로부터 '독일의 강', 나아가 '독일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무엇보다 이 강은 고대 로마 시대 이래로 독일 역사와 전설의 주요 무대였다. 유명한 '로렐라이의 전설', 중세의 영웅 서사시 '니벨룽의 노래' 등이 모두 이 강을 따라 흐르고 있다. 그런 라인강을 독일인들은 '아버지 라인(Vater Rhein)'이라고 부른다. 1850년에 작곡한 제3번 교향곡 <라인강>은 5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슈만에게도 매우 의미있는 곡으로 드레스덴에서의 어두웠던 나날들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의미와 뒤셀도르프 음악감독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를 향한 열망과 의지를 이 작품에 담고 있다.

##### 울산시향 상임악장 바이올리니스트 '지성호'와

#####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인 최정상의 비올리니스트 '김상진'이 들려주는 환상의 화모니

이번 정기연주회의 협연은 현재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상임악장으로 재직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지성호와 연세대 비올라교수 김상진이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를 협연한다. 이 곡은 형식적으로는 바로크 시대의 합주 협주곡 형식을 이어받은 협주적 교향곡 양식으로 작곡되었으며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풍부한 멜로디가 돋보인다.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아름다운 조화, 호른과 오보에의 서정적인 대화, 관과 현의 어울림이 인상적이고, 독주 악기와 오케스트라의 어울림, 세밀한 화성 과 극적 효과를 느끼는 대조 등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깊어가는 10월의 가을저녁 울산시향의 제160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클래식식의 깊은 감동을 함께 경험하기 바란다.

글 |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 독일)

로베르트 슈만은 독일의 작곡가, 피아니스트이자 음악 평론가, 미학자이다. 1810년 작센 주 초비카우에서 출판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라이프치히 대학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법률을 배우다가 뒤에 작곡과 피아노를 배우는 등 피아니스트가 되려 하였으나 손가락을 다쳐서 작곡을 하게 되었고, 평론가로서도 활약하게 되었다.

그는 가장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라고 평가받는다. 지적이며 미학적인 그의 음악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낭만적이다. 그의 초기 음악에서 너무 형식적인 고전주의의 틀을 깨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의 작품으로 <사육제> <어린이 정경> 등의 피아노 곡과 <시인의 사랑> <여인의 사랑과 생애> 등의 가곡집, 합창곡 <유랑의 무리>가 유명하고, 그 밖에 관현악곡·실내악곡·기악곡도 많다.

[울산시립합창단 제78회 정기연주회]

# 2012 울산의 노래

---

울산시립합창단  
2012. 10. 9(화)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구천(예술감독 겸 지휘자)  
입장료 전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



**① 혼성합창**

- 장생포는 바다가 아니다 | 이충호/시, 정남규/곡
- 대곡천 암각화 | 이문걸/시, 이순교/곡
- 태화강에 흐르는 시 | 문송산/시, 김준범/곡
- 개운포에서 | 이근식/시, 배동진/곡

**② 여성합창**

- 문수단풍 | 조귀자/시 국현/곡
- 겨울꿈 | 임석/시 이민정/곡

**③ 남성합창**

- 울산에 가면 | 이기철/시 조혜영/곡
- 방어진 | 신찬식/시 김영식/곡

**④ 혼성합창**

- 태화강 | 원은희/시 이기경/곡
- 주전바다 | 박찬선/시 안현순/곡
- 비 개인 태화강 | 김미영/시 정덕기/곡
- 학성공원에 올라 | 박종해/시 허결재/곡
- 울산에 갈거다 | 윤강로/시 이선택/곡

# Ulsan's song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칸타타 '울산 내 사랑', '외솔의 노래', '눈 꽃송이' 모음곡 등 울산의 문화와 정서를 담은 시를 꾸준히 발굴해 울산의 아름다움을 전파해온 '울산의 노래' 창작 작업을 2012년 구천 예술감독 겸 지휘자가 새롭게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 지정곡 등 지금도 많은 합창단체에서 불리고 있는 '울산의 노래'는 그 동안 대한민국창작합창축제, 탐라전국합창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 등의 행사에 초청되는 등 울산의 합창단체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문합창단체 및 아마추어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저변을 이루어 지역의 정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울산의 노래'는 울산의 시인들이 울산의 서정을 풀어놓은 시들 중에서 엄선하여 노랫말을 고르고 시어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선율을 덧붙여 제작하였으며,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 생동감 있는 울산의 노래를 뜻 깊은 한글날을 맞이하여 울산시민들에게 선보이고자 한다.

글 | 김성민(울산시립합창단 단무장)





# 해설이 있는 푸치니 오페라의 밤

울산시립합창단  
2012. 10. 30일(화)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예술감독 구천(예술감독 겸 지휘자)  
지휘 한성용  
사회 및 해설 전소영(동평중학교 음악교사)  
입장료 전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울산시립합창단은 오늘 10월 30일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오페라의 즐거움을 소개하고 해설을 곁들인 재미있는 음악회를 준비하였다. '해설이 있는 오페라의 밤' 시리즈는 한 해 동안 상·하반기 각 1회씩 계획되어 있는 공연으로서 지난 4월에는 도니젯티의 오페라 6편을 소개하였고 이 번에는 푸치니를 대표하는 오페라 '라보엠(La Boheme)'과 '나비부인(Madama Butterfly)'의 아리아들을 선곡하여 입체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글 | 김성민(울산시립합창단 단무장)



## 라보엠(La Boheme)

- Che geliga manina(그대의 찬 손) | 로돌포(Ter)
- Mi chiamano mimi(내 이름은 미미) | 미미(Sop)
- O! soave fanculla(오! 사랑하는 아가씨) | 로돌포, 미미(Ter, Sop)
- Quando men vo(뮤제타의 왈츠) | 뮤제타(Sop)
- Donde lieta(기쁨은 어디에 있지) | 미미(Sop)
- Addio dolce svegliare allamattina(안녕 달콤한 아침이여) | 미미(Sop), 뮤제타(Sop), 로돌포(Ter), 마르첼로(Bar)
- Ah! mini tu piu non torni(아! 미미는 돌아오지 않고) | 로돌포(Ter), 마르첼로(Bar)
- Vecchia zimarre(외투의 노래) | 콜리네(Bass)
- Te lo rammenti?(아! 그대는 나를 기억하시나요?) | 미미(Sop)

## 나비부인(Madama Butterfly)

- Vieni la sera(저녁은 다가오고) | 초초상(Sop), 핑커톤(Ter)
- Un bel di vedremo(어떤 개인 날) | 초초상(Sop)
- Scuoti quel la pconda(꽃의 2중창 - 벚꽃가지 흔들어 꽃잎을 깔고) | 초초상(Sop), 스텝키(Mezzo)
- 흐밍 코러스 | 합창
- Addio fiorito asil(안녕 꽃으로 장식된 집이여) | 핑커톤(Ter)
- To piccolo addio(안녕 아가야) | 초초상(Sop)

10.30

# 나는 무용수다 II



울산시립무용단  
2012. 10. 12(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안무 김상덕(예술감독 겸 안무자)  
사회 최은영(mbc 아나운서)  
특별출연 정재만  
출연 이정윤, 박수정, 이혁, 김시현,  
장미란, 박정수, 최미정  
입장료 전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한국 전통춤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을 목표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울산시립무용단에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나가수 형식의 무용향연을 통해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나는 무용수다'에 이어 '나는 무용수다 II'를 10월 12일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나는 무용수다 II'는 국립무용단, 서울시무용단, 정동극장 무용단, 부산시립무용단, 울산시립무용단 등을 대표하는 전국 최고의 무용수가 펼치는 개성 있고 역동적인 춤을 평가하는 새로운 재미와 함께 명인 정재만 선생님의 춤사위와 예술혼을 현장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클 | 신박범(울산시립무용단 단무장)



정재만

## program

오프닝 ▪ 산하(山河) | 울산시립무용단

나는 무용수다 II

- Alone Together | 이정윤(국립무용단)
- 영혼을 위한 기도 | 이혁(정동극장무용단)
- 아제아제 바라아제 | 장미란(장미란 댄스이더)
- 미인 | 최미정(울산시립무용단)
- 상사몽 | 박수정(서울시무용단)
- 나를 팔아 나를 품다 | 김시현(부산시립무용단)
- 아버지 | 박정수(댄스팩토리)

특별출연 ▪ 허튼살풀이 | 정재만



장미란



박수정



최미정



김시현



이혁



이정윤



박정수

2009년부터 시작된 스위트콘서트는 울산문화예술회관 자체제작 공연으로 2012년에 시즌5를 맞이하게 되었다. 뮤지컬배우 백재현, 강효성, 김선영, 홍지민을 거쳐, 2012년 메인 사회자로 김호영, 최정원이 활약하고 있다. 2013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얼굴을 만나보는 이번 스위트콘서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Sweet Concert Season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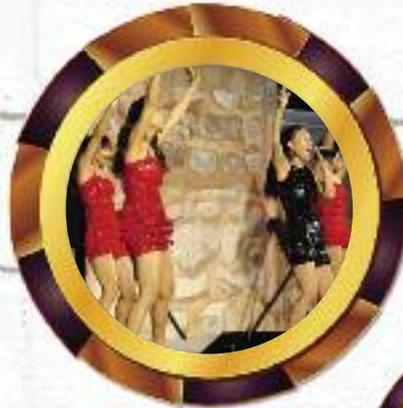
# 전수경의 Touch The Musical

일 시 | 2012. 10. 13(토) 19:00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 2012년 하반기 부터 기획되는 "스위트콘서트"의 티켓가격이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착오없이시기 바랍니다.



뮤지컬 갈라팀 TOP



이건명



이진희

**유명 뮤지컬 배우를 공연캐릭터가 아닌 실제로 만나다!!!**

공연 안에서 극중 캐릭터로만 만날 수 있는 뮤지컬배우, 하지만 스위트콘서트에서는 마치 옆집 오빠나 친구를 만나는 듯한 느낌으로 배우와 만나볼 수 있다. 스위트콘서트는 제목 그대로 관객에게 편안하고 달콤한 추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공연이다.

**유명 뮤지컬 배우를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

"영화음악은 옛 여인의 향수이다"라고 말했던 세계적인 영화광 장 킵 고다르... 스위트콘서트에서 유명 뮤지컬 배우가 뮤지컬 속의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을 들려준다면 그 뮤지컬을 봤을 때의 감흥을 또다시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공연의 추억을 스위트콘서트로 정리하자.

**배우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좌충우돌 실수담, 배우가 되기까지...)**

배우들이 들려주는 무대 뒷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다. 수동적인 관람공연이 아닌 무대와 객석이 동화되는 자연스러운 만남!!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일 시 | 2012. 10. 25(목) 11:00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출 연 | 소프라노 김수현, 메조소프라노 나영희, 바리톤 권지훈,  
피아노 황다운, 아델라현악앙상블 등

입장료 | 전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10월 25일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공연이 펼쳐진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의 여덟 번째 모닝콘서트 프로그램으로 선선한 가을날에 잘 어울리는 클래식과 한국가곡들을 결합한 공연을 통해 울산 시민들에게 더 아름다운 가을을 선물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공연에서는 정통 클래식보다는 대중들이 쉽게 접하고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곡들로 채워진다. 김동진 작곡의 가고파, 정지용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향수, 동심초, 보리밭 등 너무나도 귀에 익은 주옥같은 한국가곡과 유명한 이태리의 맹인 성악가인 안드레아 보첼리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라노 사라 브라이트먼이 불러 세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Time to say goodbye의 이태리어 버전인 Con te partiro, 얼마 전 KBS예능프로그램인 남자의 자격에서 유명세를 탄 Nella fantasia 등을 들려준다. 소프라노 김수현, 메조소프라노 나영희, 바리톤 권지훈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과 피아노 황다운, 아델라현악앙상블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감상 할 수 있는 이 공연은 가을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노래들을 선별하여 깊어 가는 가을을 더욱 아름답게 기억하게 해 줄 것이다.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소프라노 김수현



▶메조소프라노 나영희



▲바리톤 권지훈



▶피아노 황다운

▼아델라현악앙상블



# 수요열린예술무대, 뒤란

2012년 뒤란

1월-4월 격주(수) 19:30, 5월-9월 매주(수) 19:30, 10월-12월 격주(수) 19:30

사회자

2012년 JK김동욱

(2005 전현철/2006-7 남궁연/2008 김C/2009-2010 윤태정,김상명,하새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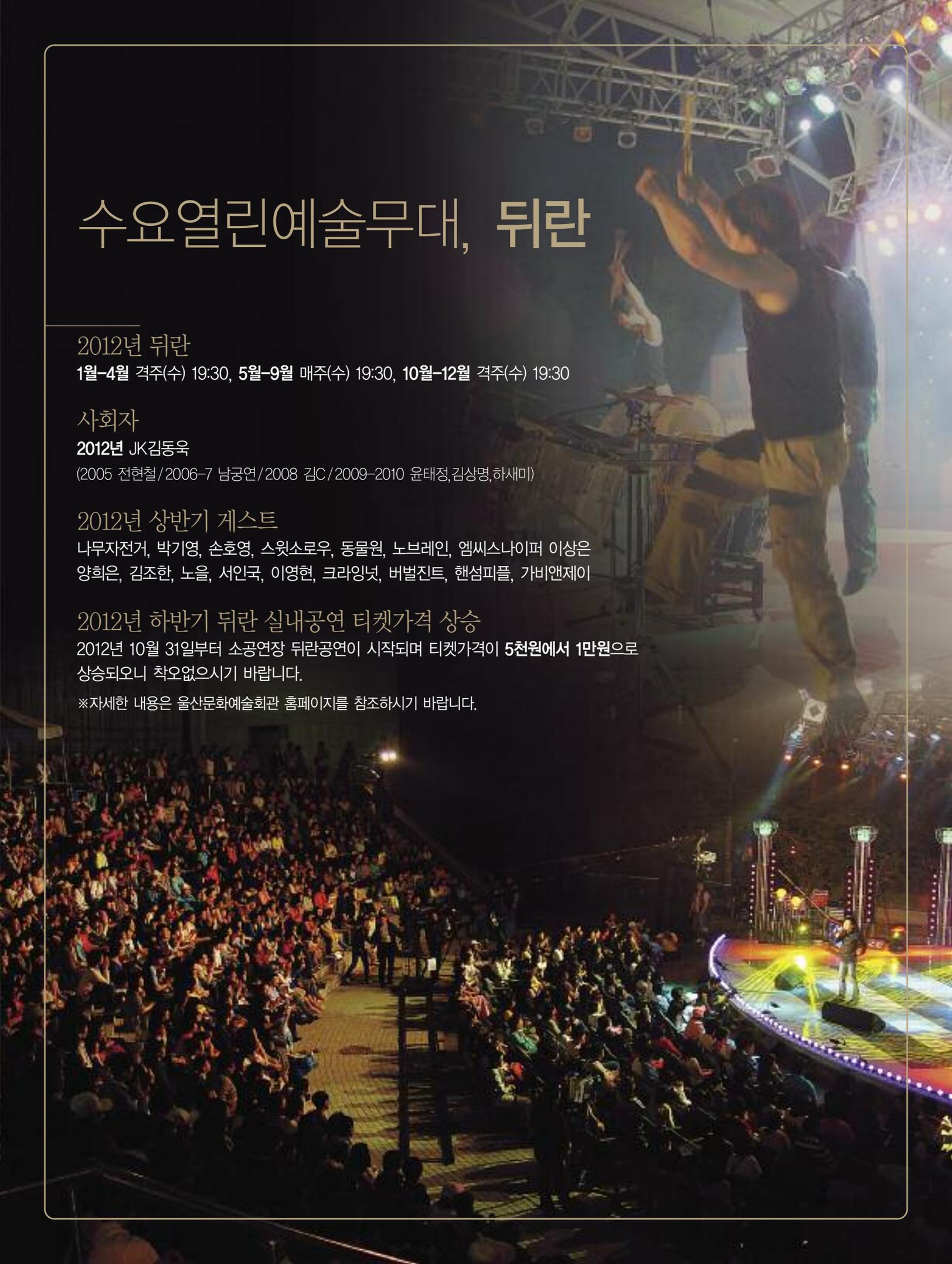
2012년 상반기 게스트

나무자전거, 박기영, 손호영, 스윗소로우, 동물원, 노브레인, 엠씨스나이퍼 이상은  
양희은, 김조한, 노을, 서인국, 이영현, 크라이넛, 버벌진트, 한섬피플, 가비엔제이

2012년 하반기 뒤란 실내공연 티켓가격 상승

2012년 10월 31일부터 소공연장 뒤란공연이 시작되며 티켓가격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승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ts Friend

## Part.1 예술을 말하다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

파리 빌레트 공원과 음악도시

오페라의 역사 V

피터르 브뢰헬 1세의 <추수하는 사람들>

슈만과 클라라의 위대한 사랑

## Part.2 UCAC는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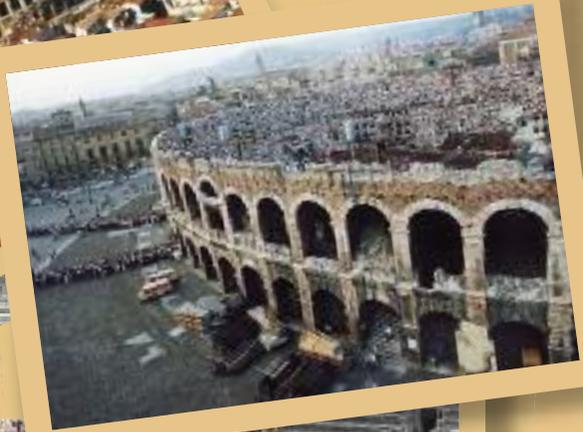
처용문화제 이모저모

## Part.3 10월의 공연·전시

공연·전시 가이드

10월의 공연·전시





고대 원형경기장에서 즐기는  
여름밤의 유희

#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

Verona Opera Festival

고대 로마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로마는 영토를 넓히느라 심미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보된 제국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건축과 토목, 법률 등 실용적인 분야는 크게 발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신전과 극장, 콜로세움, 목욕탕 등이 건설됐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대부분은 빈민이었는데요.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로마 제국은 거대 원형경기장을 세워 그곳에서 검투사 경기를 보여 주고, 대중목욕탕을 만들어 놀이와 연회를 즐기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의 엄청난 관광자원인면서 세계인에게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이렇게 탄생했다니 아이러니컬합니다. 그 덕분에 즐길 수 있는 근사한 축제 중 하나가 바로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Verona Opera Festival)>입니다. 고대 원형경기장에서 우리는 검투사 경기가 아니라 오페라를 즐기는 것이죠.



### 베로나가 어디냐고요?!

처음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만 해도 '베로나'라는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많이들 이용하는 경로죠? 베네치아로 들어가 피렌체와 피사를 찍고 로마로 나오는 루트를 이용하며 피자과 파스타, 젤라토와 커피를 과식하고, 명품이라는 가방도 사주고, 30유로짜리 사진도 찍혀주고, 기차도 1시간 정도는 기다려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베로나 원형경기장에서 대규모 오페라 축제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어찌나 속상하던지요.

베로나는 베니스 옆에 있습니다. 밀라노와 베니스 중간 지점인데요. 기차로 밀라노에서 2시간, 베니스에서는 1시간 30분 정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여행 일정에 넣기 딱 좋습니다. 그런

가하면 베로나는 이탈리아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서쪽지방을 여행한 뒤 찾아가기에도 쉽습니다. 저 역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기차를 이용해 3시간 만에 베로나에 도착했습니다. 베로나에 들어서면 알프스에서 시작된 아디제강이 도시를 관통해 유유히 흐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알프스 산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35도를 넘는 불볕더위는 물론이고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질 때도 많습니다.

###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

2세기 초에 건설된 로마시대의 원형극장 아레나극장. 아레나는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과 나폴리 근처 카푸아에 있는 경기장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원형경기장입니다. 원래 투기장이었던 이곳에 해마다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페라를 보기 위해 찾아듭니다. 축제는 베로나 출신의 테너 지오반니 제나텔로(Giovanni Zenatello)와 극장 기획자 로바토(Ottone Rovato)가 베르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1913년 여름 야외 오페라를 공연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올해로 장장 90회를 맞았습니다. 오페라의 나라 이탈리아인 만큼 대부분의 무대는 베르디와 푸치니의 작품을 중심으로 공연되는데요. 베르디의 <아이다(AIDA)> <리골레토(RIGOLETTO)>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나부코(NABUCCO)>, 푸치니의 <투란도트(TURANDOT)> <라보엠(LA BOHEME)> <토스카(TOSCA)> <나비부인(MADAMA BUTTERFLY)> 등이 공연되고, 비제의 <카르멘(CARMEN)> 등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원형경기장은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해 만여 명만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티켓은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 홈페이지(www.arena.it/en-US/HOMEen.html)를 통해 예매할 수 있는데요. 티켓을 출력해가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가난한 유학생 버전으로 가장 저렴한 자리에서 봤는데요. 오케스트라 바로 뒤쪽 자리는 VIP석으로 드레스와 슈트를 갖춰 입은 이들이 화려한 몸놀림으로 입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에서는 고대 원형경기장이 갖춘 올림 현상을 이용해 따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경기장이 워낙 크다 보니 자리가 너무 멀 경우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 2012년 베로나, 그 짧고도 아쉬운 만남

올해 90돌을 맞은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은 지난 6월 22일 모차르트의 <돈 조바니(DON GIOVANNI)>로 문을 열었습니다. 9월 2일 베르디의 <아이다(AIDA)>로 막을 내릴 때까지 날짜별로 투란도트(TURANDOT), 토스카(TOSCA), 카르멘(CARMEN), 로미오 앤 줄리엣(ROMEO ET JULIETTE) 등이 함께 공연됐는데요. 모든 오페라가 탐이 났지만 줄리엣의 고향에 간 만큼 저는 <로미오 앤 줄리엣>을 봤습니다. 베로나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요. 도시 중심에는 '줄리엣의 집'이 있고, 연중 많은 여행객들이 '줄리엣의 집'을 찾고 있는데요. 줄리엣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줄리엣 동상 주변에는 잠시 '번태'로 돌변한 여행객들이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답니다.

오페라 <로미오 앤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샤를 구노가 엮어낸 작품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베마리아>로 잘 알려진 프랑스 출신 작곡가이지요. 오페라 <로미오 앤 줄리엣>은 지난 1867년 파리의 테아트르 릴리크에서 초연됐는데요. 국내에서는 자주 접하기 힘든 작품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오페라 공연 레퍼토리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연은 밤 9시에 시작하는데요. 매일 공연되는 작품이 바뀌는 만큼 고정된 무대장치를 설치할 수 없어 무대연출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형경기장을 한껏 이용한 웅장한 고전미는 고대 문화유산을 지닌 이탈리아만이 뽐낼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뽐어내는 화려한 하모니, 그 장중한 울림에 반해 있는 사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형경기장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무대는 물론이고 오케스트라 피트에도 지붕이 없으니, 공연은 당연히 중단됐습니다.





관객들은 우르르 비를 피할 수 있는 계단으로 물러갔고, 신기한 것은 그곳에서 별 걱정 없이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근심 있는 사람은 저 뿐이네요. 공연이 너무 늦게 끝나면 숙소에 돌아갈 때 무서운데, 내일은 베로나를 떠나야 하는데 비가 계속 오면 어찌나...

### 베로나, 2013년을 기약하며

일단 원형경기장에서 오페라가 시작하면 중간에 비가 와서 공연이 취소돼도 환불은 안 됩니다. 몇 년을 기다려 찾아온 베로나, 그러나 빗속에 30분을 기다린 저는 씩긋 웃으며 숙소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흔히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곤 하는데, 역시 둘 다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돌이켜보니, 예전에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도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 피렌체의 '코무날레 극장', 로마의 '오페라 극장',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 등에서 공연을 보려고 시도했지만 여정과 공연 일정이 절묘하게 빗나가 놓쳤더랬습니다. 또 세계 3대 테너가 무대에 섰다는 '로마 카라칼라 극장' 티켓을 예매했지만, 답장이 스팸메일함으로 가는 통에 뒤늦게 확인했던 기억도 있네요. 이탈리아는 제게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처럼 안타까운 곳인가 봅니다.

내년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아이다> <나부코> <나트라비아타> <일트로바토레> <메사다레 퀴엠펜> <로미오 앤 줄리엣> <리골레토> 등이 공연될 예정인데요.

공연 때 제 옆에 앉았던 중년 여인은 어릴 적 부모님과 베로나 페스티벌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딸들과 함께 왔다고요. 근사하지 않나요? 오페라를 좋아하지 않아도 혹은 잘 몰라도,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은 오랫동안 마음을 출렁이게 만드는 멋진 축제입니다.

또 도시 구석구석에 자리한 아름다운 성당과 박물관, 활기가 넘치는 노천카페와 레스토랑, 자꾸 발목을 잡는 쇼핑 숲이 넘쳐나기 때문에 베로나를 여행할 때는 이틀 정도 머물면서 안전하게 공연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올해 공연을 제대로 못 봤으니, 내년을 기약해봅니다. 저는 딸이 없으니, 조카들한테 같이 가자고 즐라 보렵니다.

### 글 | 윤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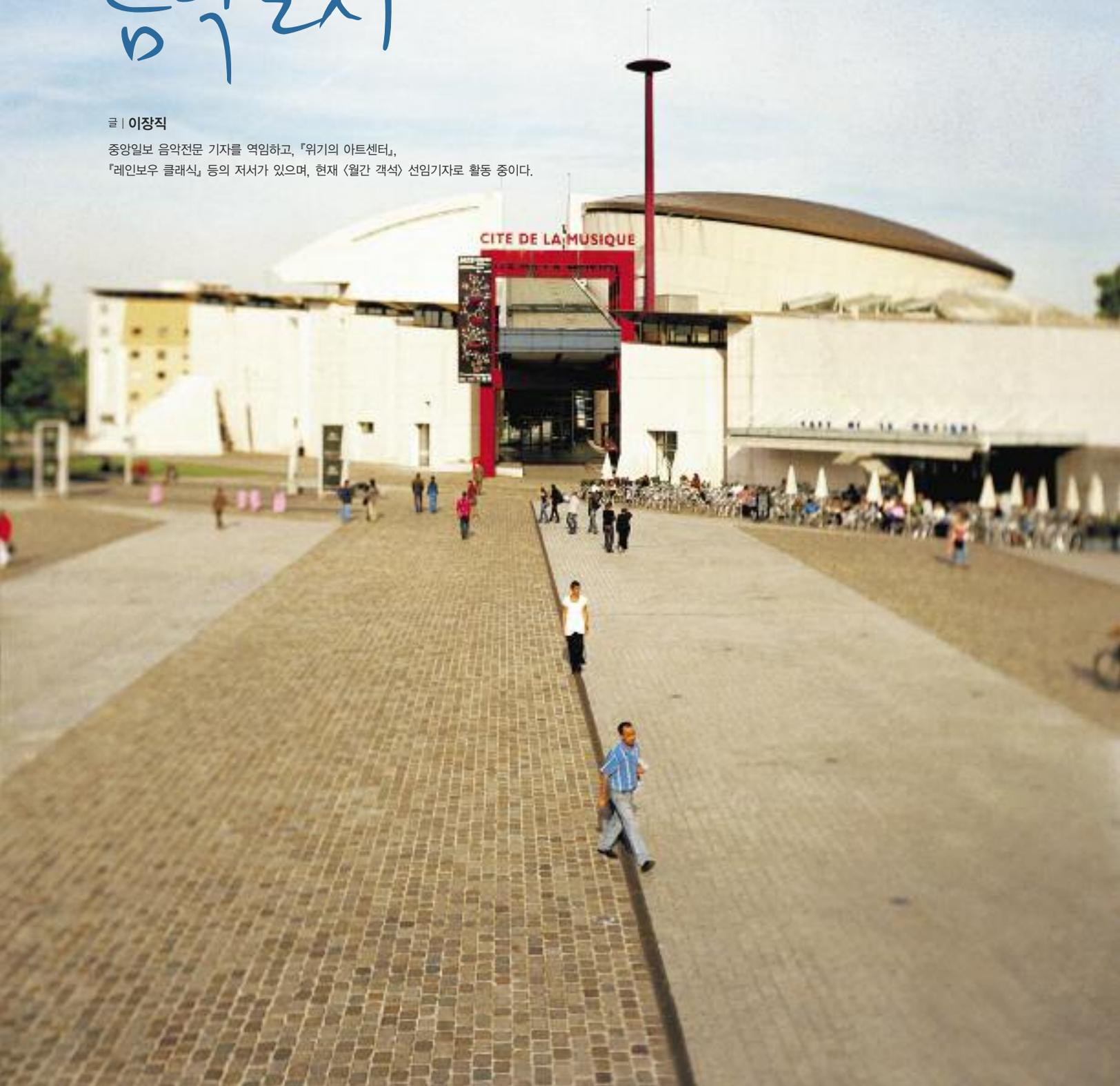
KBS 앵커, 조흥은행 아나운서, TBS 방송기자 등 방송활동과 YES24 공연매거진·(주)좋은콘서트·삼성전자 웹진 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뷰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영국 유학중이며 유럽 공연기행을 준비 중이다.

Villete Park & Cite de la Musique

# 파리 빌레트 공원나 음악도시

글 | 이장직

중앙일보 음악전문 기사를 역임하고, 『위기의 아트센터』, 『레인보우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월간 객석> 선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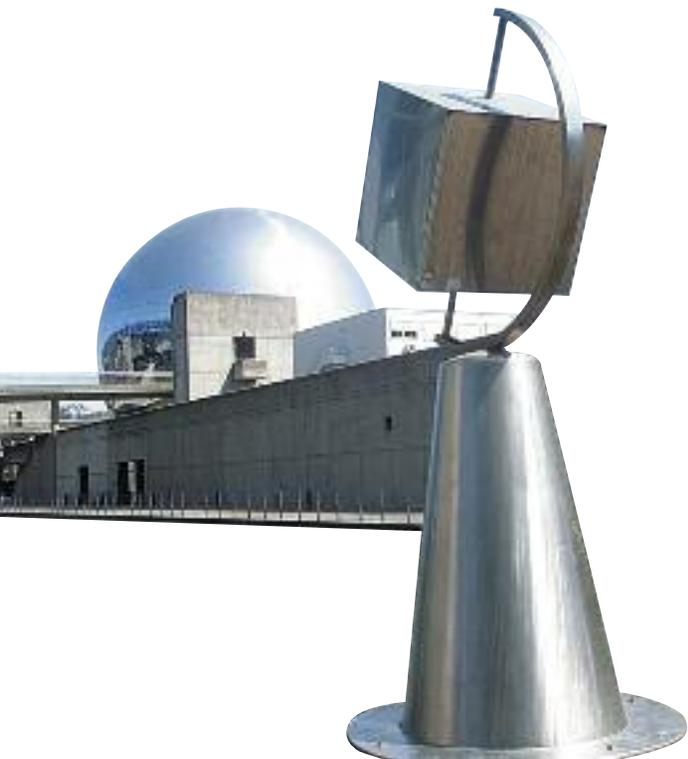


1995년 1월 18일에 개관한 ‘음악 도시(Cite de la Musique)’는 파리 빌레트 공원에 자리잡고 있다. 빌레트 공원은 당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당 정부가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해 야심차게 기획한 국가기념비적 프로젝트 ‘그랑 프로젝트(Grands Projets)’의 일환으로 파리 북동부에 조성한 복합 문화과학센터 및 공원이다. 그랑 프로젝트 가운데는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바스티유 감옥이 있던 자리(기차역)에 들어선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기차역을 개조한 파리 오르세 박물관, 라 테팡스 등이 있다.

빌레트 공원은 1850년부터 1974년 3월까지 파리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육류를 공급하던 도살장과 축산물 시장이 있던 곳이다. 서울로 말하자면 마장동 같은 동네다. 1867년 나폴레옹 3세의 명으로 이곳에 세워진 도살장은 1974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도살장이 문을 닫은 뒤 슬럼가로 바뀌면서 북아프리카 이민 노동자들이 대거 옮겨살면서 도시 외곽의 우범 지대로 바뀌었다. 하지만 넓은 녹지와 수변 공간을 갖춘 21세기형 첨단 산업문화 에코 공원이 들어서면서 이곳은 중산층의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과거와 미래, 파리 도심과 교외, 도시와 자연, 예술과 과학, 정신과 육체가 교감하는 곳이다. 높이 10m 짜리 붉은색 철제 구조물 폴리(Folies)가 공원 전체에 12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공원 전체에 시각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주는 폴리는 모두 25개소다. 외관은 같지만 기능은 어린이용 미끄럼틀에서부터 카페, 정보센터, 간이 응급실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폴리는 이정표 구실도 하고 있어 만남의 장소로 인기가 있다.

1985년 영화상영과 전시회, 산업 박람회, 뮤직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위한 공간인 그랑드 알레(Grande Halle)는 빌레트 공원 내의 건축물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1867년 개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제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혔던 작품이다. 지하철 포트 드 팡탱 역에 내리면 정면에 바라보이는 건물이다. 이곳은 원래 막 도축을 끝낸 소와 돼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철제 구조물이었다. 빌레트 공원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옛날 건물이다. 물론 건물 내부는 현대적으로 리노베이션했다. 매년 여름 밤 10시에는 고전 영화나 인기 있는 최근작을 상영하는 야외 영화제가 열린다. 처음엔 무료 행사였으나 너무 많은 관객들이 몰려 최근엔 입장료(2 유로)를 받고 있다. 점의자와 담요까지 대여해준다. 탁트인 야외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즐기는 행사다.





그랑드 알레를 시작으로 6300석 규모의 팝과 록 공연장 '제니트', 프랑스가 개발한 각종 자동차와 항공기, 우주선, 생명공학, 지구과학, 물리, 화학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과학기술력을 전세계에 과시하는 박물관 '과학산업도시', 원형 구조의 아이맥스 영화관 '제오드', 600~1200석 규모의 가변형 콘서트 무대인 카바레 '소바주', 재즈와 민속음악 무대로 사용되는 700석 규모의 '트라벤도' 등도 잇따라 문을 열었다. '제니트'는 지난해 6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에프엑스 등 케이팝 그룹이 7000여명의 한류팬들 앞에서 열띤 공연을 펼쳤던 곳으로 유명하다. 과학산업도시는 상점과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정원, 영상관, 멀티미디어 도서관, 회의실, 유스호스텔과 고급 호텔도 갖추고 있어 과학관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도시를 방불케한다.

빌레트 공원이 일반에 개방된 것은 1987년이다. 1990년엔 파리 국립 음악원, 1995년 '음악 도시'가 문을 열었고 1997년 '음악 도시' 내의 음악박물관 개관으로 20여년 걸린 빌레트 공원의 대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연간 8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찾

아오고 있는데 파리 인구의 4배에 가까운 숫자다. 이 가운데 외국인 관객의 비율이 16%에 달한다. 하루 평균 1만 여명이 이곳을 찾는 셈이다. 길이 3km의 산책로를 천천히 걷다보면 어느새 번잡한 도시 생활에 찌든 삶의 무게에서 해방된 느낌을 받는다. 널찍한 잔디밭은 시민들이 공놀이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살아있는 휴식 공간이다.

시테 드라 뮤직 건물은 유연한 경사로 이어지는 지붕 구조에서부터 음악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 중세 도시의 미로적 특성을 잘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은 나선형의 통로와 천장의 유리창을 통한 부드러운 자연광이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곳엔 1200석의 콘서트홀과 250석의 리사이틀홀, 오르간룸, 음악, 무용정보센터, 미디어테크, 아틀리에, 서점, 파리음악원 기숙사 및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작곡가 피에르 블레즈가 이끄는 현대음악 전문 연주 그룹 '양상블 앙테르콩탕포랭'도 입주했다.

음악박물관은 관람객에게 살아있는 음악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악기만 전시하고 마는 종래의 악기 박물관과는 다르다. 연면적 3000㎡, 5층 규모의 상설 전시장은 파리 음악원 소유의 악기 4500점을 전시 중이다. 17세기 이후 클래식, 팝음악에서 사용된 악기들과 류트, 기타, 스트라디바리, 파르네리, 아마티 등 바이올린의 명기들, 초창기의 하프시코드, 피아노, 색소폰 등이 눈길을 끈다. 루브르, 오르세, 베르사유 박물관에서 영구 임대해 온 음악 관련 회화, 조각품들도 전시 중이다. 230석 규모의 원형 극장에는 장 프랑수아 뒤퐁이 만든 바로크 오르간이 설치돼 있는데 파리 음악원





## Villete Park & Cite de la Musique



학생들이 교대로 연주를 맡아 관람객의 귀를 즐겁게 한다. 현존하는 최초의 오페라인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 (1607)가 상연됐던 이탈리아 만투아의 곤자가 궁정에서부터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 초연돼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파리 샹젤리제 극장의 모형까지 전시되어 있어 음악사에 큰 획을 그었던 사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악기는 BC 2500년께 만들어진 피리다. 가장 큰 악기는 1885년 장 밥티스트 윌롬이 베를리오즈를 위해 만든 옥토바스로 높이가 3.48m나 된다. 더블 베이스보다 세 배나 크다.

이 밖에도 1935년 처음 등장한 휴대용 라디오 '스트라디부스', 63년 필립스사가 발명한 최초의 카세트 녹음기 마그네토폰, 85년 미국 벨연구소가 개발한 전자바이올린, 94년 일본 야마하사가 제작한 MIDI 색소폰 등 20세기에 출현한 음악 관련 기기들도 눈에 띈다. 관람객들은 헤드폰을 끼고 전시장을 돌아다니다 악기 앞에 멈추면 실제로 연주된 음악과 해설(영어 또는 프랑스어)을 들을 수 있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도중 발길을 옮기면 음악도 함께 바뀌게 돼 있다. 따라서 관람에 소요되는 시간은 관람객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음악박물관에서는 악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아 데이터뱅크로 제공하는 한편 음악과 관련된 영화상영, 학술 세미나, 연주회 등 기획행사를 푸짐하게 준비해놓고 있다.

'음악 도시' 설계에는 콘서트홀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미뤄졌다. 2014년 빌레트 공원에 들어서는 '필하모니 드 파리'는 살 플레엘(1927년 개관) 이후 무려 85년 만에 파리에 신축되는 콘서트홀이다. 2006년 3월 6일 프랑스 문화부 장관, 파리 시장, 시테 드 라 뮈지크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신축 계획을 밝힌 지 6년 만에 완공되는 셈이다. 총공사비는 2억 유로(약 3000억원). 프랑스 정부와 파리시에서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객석수는 2400석 규모다. 민간 오케스트라이지만 '국립'이나 다름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파리 오케스트라(Orchestre de Paris)가 상주 단체로 활동한다. 장 누벨이 건축 설계, 나가타 음향이 음향 컨설턴트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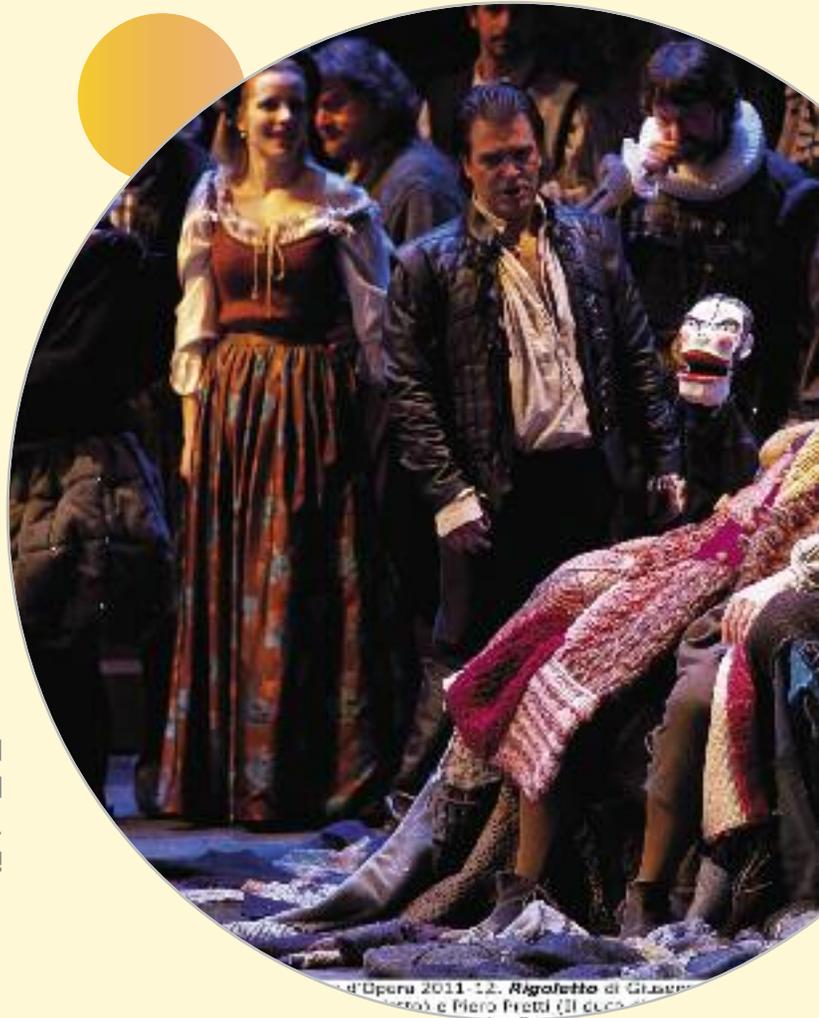
파리는 그 동안 마땅한 콘서트홀이 없어 불편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파리에서 활동 중인 '앙상블 오케스트라 드 파리'는 파리 샹젤리제 극장 공연을 앞두고 2~3개의 다른 홀을 전전하면서 연습하다가 공연 당일 오전 샹젤리제 극장에서 딱 한번 리허설을 했다고 불만을 털어 놓기도 했다. 다른 오케스트라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개보수 공사를 끝내고 재개관한 살 플레엘 덕분에 오케스트라 드 파리,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등이 숨통이 트긴 했지만 무대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파리 오케스트라는 살 플레엘이 개보수 공사에 돌입했을 때 뮤지컬 극장인 모가도르 극장 무대에서야 했다.

# 오페라의 역사 V

글 | 송종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무용과 오페라> 발행인 겸 작가로 활동 중이다.

오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적인 모든 장르의 예술이 한데 어우러져 통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음악과 문학, 무용, 연극 등을 시대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종합하여 각국의 특징적인 형태로 발전시킨다. 그런 면에서 탄생지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오페라가 가장 독자적인 형식과 내용을 구축하면서 융성한 곳이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이탈리아와는 달리 오페라의 탄생이 문화발전의 결과물이 아닌 궁정과 귀족 계급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탈리아 오페라가 전파될 당시에 프랑스는 이미 오페라의 가장 주요요소인 시와 음악이 이미 서로 비슷한 완성의 경지에 이르고 있어 음악 쪽으로 비중을 두기보다는 두 장르가 오페라 작품 속에서 상호보완적인 요소로 발전을 하게 된다.

코르네이유의 비극과 라신느의 시, 이탈리아보다도 풍요한 오케스트라의 역량, 연극 그 자체에 대한 취향, 왕이 총애하는 발레에 대한 극장 관객들의 열광 등이 프랑스 오페라를 특징짓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뫼리외와 라모가 구축한 프랑스 오페라는 그 이후 발전을 거듭하면서 여러 장르로 구분이 된다. 오늘날 비제의 '카르멘'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프랑스 오페라는 어떠한 장르가 있고 그 장르 각각의 특성과 작품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적어본다. 또한 프랑스 오페라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 오페레타, 오늘날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뮤지컬과의 오페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프랑스 오페라는 19세기 파리를 중심으로 3가지 대표적 장르인 그랑 오페라(Grand Opera, 그랜드 오페라), 오페라 리리크(Opera Lyrique), 오페라 코미크(Opera Comique)로 분류가 된다.

초기 이탈리아 오페라의 영향에서 서서히 벗어나 프랑스적인 특징을 지닌 오페라로 발전을 하다가 19세기에 이르러 프랑스의 오페라 제작자들은 파리인들의 취향에 맞는 요소들을 오페라에 도입하여 그 형식을 구축하여 '그랑 오페라'를 탄생시킨다. 그랑 오페라는 당시 새로 고안한 기계 장치로 이룬 화려하고 환상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스펙터클한 효과를 최대한 살렸다. 볼거리 위주의 대관식장면, 부활절 행렬, 개선 장면 등이 필수적으로 삽입된다.

그 외에도 그랑 오페라에는 몇가지 갖추어야 할 조건과 형식이 있다. 프랑스어를 대본으로 하는 5막짜리 오페라이어야 하며, 그 속에는 반드시 발레 장면이 삽입되어야 한다. 프랑스인들의 발레사랑은 유명해서 비록 외국 작품이라도 프랑스에서 공연을 할 때는 반드시 발레를 삽입해야만 했다. 바그너의 '탄호이저' 중 베누스베르그 동굴 장면의 발레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프리마돈나 1인 중심의 이탈리아풍 오페라와는 달리 등장인물이 여러 명 나오며, 이들의 상황을 각각 다각도로 묘사한다. 작품의 배경은 실제로 일어난 유명한 역사적 혹은 정치적 사건으로 하며, 그런 거대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휩쓸리는 인간의 운명과 심리를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극의 특징상 희극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규모가 크고 길다고 그랑 오페라라고 부르지는 않고, 위와 같은 형식에 맞추어서 작곡가와 대본가들이 음악과 대사를 만들어 놓은 오페라가 그랑 오페라라고 한다. 바그너의 악극 같은 경우는 그랑 오페라보다 훨씬 더 길고 대규모이지만 그랑 오페라라고 칭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기본 형식이 약간씩 변형이 되기는 하지만 프랑스어 대본인 것은 확실히 지켜져야 한다. 베르디의 '돈 카를로'의 경우에도 프랑스어 버전만이 그랑 오페라라고 부르고, 이태리어 버전은 그랑 오페라라고 하지 않는다.

최초의 그랑 오페라는 나폴리 혁명을 배경으로 한 D.F.오베르의 'La muette





de Portici (1828)이다. 이후 루시니 '윌리암 텔', 마이어베어 '악마 로베르', '위그노교도', 알레비 '유대여인', 베를리오즈 '트로이사람들', '파우스트의 겁탈', 베르디 '예루살렘',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랑 오페라의 마지막은 É.Paladilhe '조국!' (1886). 이 작품은 처음 공연 당시에는 파리에서만 도 거의 100회 가까운 공연을 했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기가 힘든 작품이 되었다. '오페라 코미크'는 원래 루이14세 치하에서 1714년 지어진 극장 이름이다. 파리오페라극장이 그랑 오페라 중심의 공연장이고, 오페라 코미크는 희극오페라(오페라 부파)를 올리기 위한 극장이었지만 점차 그랑 오페라의 반대 개념을 가진 오페라의 근원지로 자리 매김했다.

프랑스 그랑 오페라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스타일에 반대하여, 계몽적이고 서민적인 가족 중심의 작품을 올렸다. 그리하여 희극오페라 뿐 아니라 관객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진지하고 감동적인,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자신들 주위의 잔잔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 비극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오페라를 상연하는 곳이 되어 갔다. 오페라 코미크의 형식상 특징은 레치타티보 대신 노래 사이에 대사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1750년 루소의 '마을의 예언자'를 효시로 하여 오페라 코미크는 독자적인 장르로서 발전하는데, 초창기에는 사회 풍자적 성격과 낭만적 로맨스나 계략 등의 가벼운 줄거리, 애조를 띤 선율, 가벼운 웃음을 선사하는 내용 등이 특징이었다. 오페라 코미크 작곡가로서 A.E.그레트리(1741~1813)의 기여는 매우 크다. 그는 심각하고 낭만적인 주제와 호소력 있는 관현악법을 사용하면서 간결한 구성, 서정적인 멜로디 등으로 18세기 오페라 코미크의 대표적 작곡가가 되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미다스왕의 심판' (1778), '사자왕 리차드(1784)', 등이 있다.

이후 F.A.보아엘뒤(1775~1834)는 '파리의 장', '흰옷의 부인' 등을 작곡하여 이탈리아 오페라 부파에 필적할 만한 오페라 코미크를 확립했다. 그 뒤 오베르(1782-1871)도 '르 메송', '마농 레스코' 등의 걸작을 포함하는 약 37곡의 오페라 코미크를 썼고, 우리에게 발레 '지젤'의 작곡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A.Adam도 'Le postillon de Longjumeau' 등의 오페라 코미크 작품을 남기고 있다.

오페라 리리크(Opera Lyrique)는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중 내용이 희극이 아닌 오페라를 일컫는다. 크게 보면 오페라 코미크에 속하는 장르이다. 내용은 서정적이고 진지하며, 관객을 감동시키는 오페라로 지금 우리가 프랑스 오페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레퍼토리가 오페라 리리크이다. 구노 '파우스트', '로미오와 줄리엣', 생상스 '삼손과 데릴라', 마스네 '마농', '베르테르', '타이스', 토마 '마농', '햄릿' 등 익히 아는 작품들이다.





# The history of the Opera

하지만 오페라 코미크( 혹은 리리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작품은 1875년 비제(1838~1875)가 발표한 '카르멘'이다. 초연 당시는 비도덕, 불건전, 관능성, 퇴폐성 등을 이유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지만, '카르멘'은 곧 그 진가를 인정받게 된다. 이 작품은 당시 거의 혁명적이라 할 만큼 문화계 충격을 주었는데 초연부터 차이콥스키, 니체 등이 극찬한 작품이다. 이후 안무가들에게도 수많은 영향을 끼쳐 카르멘을 주제로 한 발레 작품만 해도 거의 30여 작품에 이른다. 프랑스 뿐 아니라 오페라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열정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프랑스 오페라를 현실주의, 사실주의로 이끌어주었으며 오늘날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오페레타'는 오페라 코미크에서 공연되는 희극적인 내용의 오페라에서 생겨난다.

오페라보다는 훨씬 가벼운 장르로 경가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오페라에 비해 선율이 단순하고 따라 부르기 쉬운 창법으로 구성되어있다. 내용은 주로 기존 오페라에서 다른 내용을 패러디하는 것이 특징이며 가수들은 노래 이외에도 코믹한 연기도 능숙하게 해야 하며 직접 춤도 추어야한다. 레시타티보 없이 노래 사이에는 대사가 등장한다.

'파리 오페레타'와 '빈 오페레타'가 유명하다. 파리 오페레타는 유태계 작곡가 J.오펜바흐(1819~1880)가 1858년 '천국과 지옥'이 성공을 거둔 후 유행하였다. 오펜바흐는 '아름다운 엘렌' 등 90여 오페레타 작품을 작곡하였는데, 그의 작품은 그리스신화를 바탕으로 당시 파리사람들의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삶을 풍자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빈 오페레타'는 1860년 오펜바흐가 빈을 방문하여 그의 작품을 상연하면서 유행되었다. '빈 오페레타'의 특징은 파리 오페레타 보다 풍자적인 요소는 덜하며 감미로운 멜로디와 아름다운 왈츠가 많이 들어 있는 점이다. 빈 오페레타의 대표작으로는 요한슈트라우스 '박쥐', '집시남작', 레하르 '즐거운 미망인', '미소의 나라' 등을 들 수 있다.

영국에서도 1870년대에 오펜바흐의 작품이 유행하면서부터 오페레타가 인기를 끌었다. 길버트와 설리번이 만들어낸 '미카도' 등의 작품이 있다.

##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

'오페레타'(작은 오페라 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대중예술 장르가 뮤지컬이다. 하지만 오페라(혹은 오페레타)와 뮤지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일단 마이크의 사용유무이다. 오페라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성악적 발성으로 극장의 공간을 울리게 하여 소리를 퍼뜨리는 발성을 한다. 하지만 뮤지컬은 마이크를 사용하는 대중음악 발성을 한다. 즉, 오페라는 클래식음악이고 뮤지컬은 대중음악이다. 오페라는 음악을 중심으로 연극적인 요소를 덧붙이지만, 뮤지컬은 연극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음악을 첨가한다. 그래서 음악대학 성악과를 나온 오페라 가수가 오페라에 출연하고, 뮤지컬은 연극영화과를 나온 뮤지컬 배우가 출연한다. 제일 큰 차이는 오페라는 고전음악에 속하고, 뮤지컬은 대중음악에 속한다.



## 피터르 브뤼헬 1세의 추수하는 사람들



브뤼헬 1세, 〈추수하는 사람들〉, 1565. 목판에 유채, 119x162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산업화 이전 농업 중심 시대의 삶은 계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농사는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하는 고되고 수고로운 일이고, 이는 풍요로운 수확의 모습을 담은 브뤼헬 1세의 〈추수하는 사람들〉에 잘 나타나 있다.

브뤼헬 1세(Pieter Bruegel the Elder, 우리나라에는 영어식 발음인 브뤼겔로 더 잘 알려져 있다)는 오늘날 네덜란드에 위치한 플랑드르 브레다 인근의 브뤼헬에서 태어나, 고향의 이름을 성으로 삼았다고 한다. 젊은 시절에는 잠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미술을 공부한 뒤, 안트베르펜과 브뤼셀에서 활동했다. 그는 ‘농민 브뤼헬’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이전의 회화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던 농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림의 주제로 즐겨 삼았고,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거나 사회풍자를 했다.

〈추수하는 사람들〉은 〈계절〉 연작의 하나인데, 이는 브뤼헬의 가장 큰 후원자였던 부유한 은행가 용헬링크(Niclaes Jongelinc)가 교외의 별장에 걸기 위해 주문한 작품이다. 이후 안트베르펜 시 의회가 이를 구입하여 네

덜란드 총독에게 선물했고, 다시 신성로마제국 황제 루돌프 2세의 소장품이 되었지만 소실되어 일부만 남아있다. 이 연작은 계절의 흐름을 각 계절에 해당하는 농민들의 활동을 6개의 그림에 나누어 그린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5점만 남아 있다.

화면의 전경에 펼쳐진 셋노란 밀밭에서는 추수가 한창이다. 밀을 수확하고 있는 것을 바서는 8월 즈음이 아닐까 생각된다. 몇몇 농부들이 열심히 낫으로 추수를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이들은 새참을 먹거나, 허리끈을 풀고 낮잠을 자며 쉬고 있다. 한낮의 햇빛을 피해 서양배 나무 그늘 아래에 모여 앉은 농부들은 커다란 사발에 담긴 죽과 빵을 먹고 있다. 바구니에 있는 빵을 자르는 농부의 팔에 꽤 힘이 들어간 것으로 봐서 빵이 거칠고 딱딱함을 알 수 있다. 오른쪽 뒤에 있는 다른 나무 위에는 한 사람이 올라가 열매를 따고, 그 아래로는 두 사람이 떨어진 열매를 줍고 있다. 브뤼헬은 이렇게 농부들의 식사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우리를 16세기 북유럽의 농촌으로 이끈다. 브뤼헬이 살았던 16세기의 북유럽의 지식인들은 이런 일상의 모습에



서도 도덕적 교훈을 찾아내는 놀이를 즐겼는데, 근면하게 추수를 하는 농민과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는 농부는 “여름에 모아들이는 이는 사려 깊은 아들이고 수확 철에 잠만 자는 자는 수치스러운 아들이다”라는 잠언 구절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식사하는 농민들 뒤로는 다른 여인들이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거나,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도 추수한 곡식이 상하지 않도록 짚단을 서로 마주 기대어 세워놓는다. 밀밭 가운데로 난 길로는 한 농부가 포도주 항아리를 꺾꺾대며 들고 오고, 일을 하던 농부 한 명은 밀밭에 숨겨져 있던 포도주 항아리를 막 발견했다. 그 뒤로는 머리에 밀 짚단을 머리에 인 여인 두 명이 걸어간다. 그는 각 부분들을 세밀하게 재현하고 있는데, 당시의 다른 화가들과 달리 농민들의 생활을 희화화하지 않고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농부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 뒤로 중경에는 집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 보인다. 이곳의 사람들은 모여 즐겁게 놀거나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어, 전경의 농부들의 고단한 삶과 대비되는 도시민들의 모습을 나타낸다. 저 멀리로는 또 다른 밭과 항구가 있어, 실제의 농촌 모습의 풍경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브뤼헐의 <추수하는 사람들>은 서양 미술사에서 풍경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룬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성경이나 신화속의 사건, 아니면 지배자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배경으로만 쓰이던 풍경이 점차 독자적인 장르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즉 풍경이 그 자체로 그림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그림 깊숙이 넓게 펼쳐진 풍경은 브뤼헐이 이 작품에서 진정으로 다르고자 했던 주제가 농민들의 풍속이 아니라, 여름날의 풍경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한다.

현존하는 <계절> 연작 5점 중 3점은 비엔나 미술사박물관에, 1점은 프라하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 <추수하는 사람들>이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소장되어 있다. 많은 이들이 사라진 브뤼헐의 작품의 내용과 행방에 대한 추측과 상상을 했고, 영국의 작가 마이클 프레이인은 그의 사라진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곤두박질(Headlong)』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오랫동안 숨어있던 <추수하는 사람들>을 1917년에 구입했는데, 여기에는 소설보다 더 극적인 일화가 있다. 어느 날 폴 장 셀(Paul Jean Cels)이라는 벨기에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오래되어 지저분한 그림 한 점을 가지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찾았다. 그는 짐을 빨리 정리하고 호주에 있는 약혼녀에게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어 했고, 당시 회화 큐레이터였던 버로(Bryson Burroughs)도 어떤 그림일까하는 호기심에 이를 구입했다. 그런데 그림에 묻은 시간의 때가 지워지자 놀랍게도 오랫동안 말로만 전해지던 브뤼헐의 <추수하는 사람들>의 진품이 세상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세상은 이 사건을 두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런 놀라운 소식이 알려지기도 전에, 심지어 미술관이 송금한 돈이 도착하기도 전에 셀은 호주에서 결핵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글 |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슈만과 클라라의 위대한 사랑

글 | 김수연

KBS울산 라디오 「러브 클래식」 진행자, 라디오·TV 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가을을 느끼기 좋은 음악. 진부하다 할지 몰라도 가을하면 단연 브람스다. 북부순환도로를 달리고 있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브람스의 현악 6중주 1번 B플랫장조 Op.18 2악장이 흘렀다. '브람스의 눈물'이라는 부제가 달린 곡으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누가 붙인 부제인지 몰라도 참 잘 지었다는 거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했던가. 걱정적이면서도 쓸쓸한 선율, 웬지 이 가을 고독한 남자 브람스의 눈물이 이 선율 속에 젖어 있는 듯 했고 그래서였는지 음악을 들으며 브람스가 평생 연모한 여인 클라라가 떠올랐고 그녀의 마음을 온통 차지했던 그녀의 남편 슈만이 음악가 슈만이 아니라 남자 슈만으로 궁금해졌다.

로베르트 슈만(1810-1856)과 클라라 슈만(1819-1896)의 사랑은 독일 최고의 작곡가와 최고 피아니스트의 만남이었고 클래식 역사상 가장 유명한 러브 스토리이다. 하지만 슈만에게 있어 클라라가 유일한 사랑은 아니었다. 슈만과 클라라가 처음 대면하게 된 나이가 18살과 9살이었으니 첫눈에 서로를 알아보기란 무리인 면도 없지 않다.

슈만은 음악 하는 걸 못마땅해 하는 어머니로 인해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법학도의 길을 걷게 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라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무리를 해서 그를 지역의 큰 도시 라이프치히로 유학 보냈다. 하지만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고 연애를 즐겼던 슈만에게 법학은 그저 지켜온 존재일 뿐이었고 그러던 차에 어머니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힘들어지자 슈만은 음악가로서의 삶을 고민하게 됐다. 그때 만나게 된 것이 대학 내 개설된 일반인들을 위한 피아노 강좌, 그것도 클라라의 아버지 프리드리히 비크(1785-1873)가 연 강좌였다. 이 강좌에서 한번은 비크가 자신의 어

린 딸 클라라의 연주 시범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 때의 강렬한 기억이 슈만에게 비크의 제자가 돼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했고 상당한 야심가이자 계산이 빠른 인물이었다. 비크는 슈만이 비범한 재능의 소유자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리고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특별 조련에 들어갔는데 슈만과 클라라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때부터라고 한다. 하지만 20살의 청년과 11살의 소녀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었다.

슈만은 클라라를 그저 자신의 어린 여동생처럼 여겼고 클라라도 재능이 많은 슈만을 존경의 마음으로 대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가난했던 비크는 재능있는 딸 클라라를 통해 부와 명예를 얻길 무엇보다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클라라는 늘 아버지의 명령 아래 기를 못피고 살았는데 그런 클라라에게 슈만은 집과 연주회장 밖의 세상을 알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가 됐다.

너무 연습에 몰두한 나머지 오른 손이 마비돼 피아니스트에서 작곡가로 방향을 튼 슈만은 당시 비평에도 손을 대고 있었는데 여성이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작곡을 하고 싶었던 클라라에게 슈만은 아주 큰 존재로 보였다. 그리고 비평가로서의 그의 언변과 필력은 어린 클라라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슈만을 향한 클라라의 마음이 점차 사랑으로 변해갔고 슈만 역시도 소녀티를 벗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한 클라라에게 마음이 향했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은 야심가의 비크의 반대로 순탄치 않았다. 비크는 딸 클라라가 이미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다지고 있었고 미모도 출중해 얼마든지 괜찮은 조건의 사위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딸을 수입도 일정치 않은 풋내기 음악가에게 내줄 수는 없었다. 게다가 클라라와 사귀기 위해 비크의 제자이기도 했던 에르네스티네 프리켄과 파혼한 것도 마음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클라라를 계속 연주여행이란 이름으로 계속 밖으로 내돌려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비크가 훼방을 놓으면 놓을수록 두 연인 사이에 주고 받는 편지의 양은 늘어만 갔고 그 애절한 마음은 슈만의 작품으로 완성이 됐다. 이에 클라라는 일부러 슈만의 곡을 연주 레퍼토리에 넣어 발표를 했고 슈만은 공연장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켜봤다고 하니 서로를 향한 마음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비크의 반대로 실의에 빠진 슈만이 중간에 잠깐 클라라 노벨로라는 미모의 가수에게 한눈을 팔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끝내 슈만은 클라라를 잊지 못했고 결국 클라라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나와 함께 도망가지 않겠소? 1840년 6월 8일까지 결혼을 알리는 기사가 신문에 나지 않으면 나는 ‘다른 클라라’와 결혼할테고 당신은 당연히 절망에 빠지게 되겠지.”

이 편지 속의 ‘다른 클라라’는 노벨로였고 슈만은 이렇게 험박하듯 편지로 연인의 마음을 얻어 비크 몰래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결국은 결혼 무효 소송을 건 비크와 3년여의 법정 싸움까지 하고서야 결혼을 쟁취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 슈만도 사랑에 있어 용감한 남자였다. 그리고 이런 클라라와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사랑의 고뇌, 기쁨, 슬픔이 만들어낸 슈만의 수많은 명곡들을 만날 수 있지 않나 싶다. 이래저래 예술가의 사랑은 위대하다.



# 제46회 처용문화제

# 이모저모



## 처용, 하늘을 날다

울산의 대표축제 ‘처용문화제’가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울산문화예술회관과 달동 문화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뮤직 마켓(Music Market)인 ‘2012 아시아 퍼시픽 뮤직 미팅(APaMM)’ 사업이 처용문화제의 중심 프로그램인 울산월드뮤직페스티벌과 함께 열리게 된다.

행사는 △처용프로그램, △월드뮤직페스티벌, △아시아 퍼시픽 뮤직 미팅, △처용학술제, △전시·체험행사와 움프시네마, 처용푸드코너, 세계음식마당, 처용투어, 처

용탈 전시 및 제작 시연, 처용연 만들기 등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처용문화제’는 1967년 제1회 공업축제를 시작으로 25회째인 1991년에 환경과 문화예술적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처용문화제’로 축제명을 변경하였으며, 1995년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2007년 제41회부터 ‘처용, 세계와 만나다’라는 취지로 울산월드뮤직페스티벌을 시작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월드뮤직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료 |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



# ULSAN WORLD MUSIC FESTIVAL 2012

울산월드뮤직페스티벌

10.04<sup>Thu</sup> ~ 10.07<sup>Sun</sup>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Arts Center  
달동문화공원 Daldong Munhwa Park

all for FREE  
전 공연 무료



www.cheoyong.or.kr



   **처용콘텐츠프로그램**  
Cheoyong Content Program
    **구·군 대표프로그램**  
District, County Representative Program
    **울산광역시 해외자매도시 공연**  
Ulsan's International Sister Cities' Performance

시간	10.4(목)		10.5(금)		10.6(토)		10.7(일)	
	처용마당	부대행사	처용마당	부대행사	처용마당	부대행사	처용마당	부대행사
14:00~14:30		처용맞이 Cheoyong Maji - Greeting Cheoyong (남구 황성동 처용암) 제의 및 시민화합 한마당 동별 꽃놀이 경연 등		처용학술제 14:00~16:30 시청대회의실 (의사당3층) Cheoyong Forum Ulsan City Office - Grand Meeting Room	북구 "쇠부리 놀이" A folk play "Ulsan Dal-nae Soeburi Nori"	처용 투어 Cheoyong City Tour 10:00-18:00		처용 투어 Cheoyong City Tour 10:00-18:00
14:30~15:00					마당극 "쇠부리는 사람들" Madanggeuk "People who do Soeburi"(Tradition Korean Performance)			
15:00~15:30	1. 남구 특화 프로그램 - 최신인기댄스 Korea Pop Dance				1. 재즈로빅 'Jazzrobic'		울주군 "와 아이라 고평이 굿" Wa Aira Gopuri gut (traditional rituals)	
15:30~16:00	2. 남구-마당극 "춤추는 고래마을" 'Dancing whale village'				2. 중구 "도호부사 행차 및 집무 퍼포먼스 Dohobusa's parade & in office, performance		처용 체조 Cheoyong Gymnastics	
16:00~16:30			1. 중구 특화 프로그램 - 난타퍼포먼스 'Nanta Performance'		처용무 Cheoyongmu (Dance of Cheoyong)		1. 처용마술 Cheoyong Magic	
16:30~17:00	처용 인형극 Cheoyong Puppet Show		2. 중구 "매귀악" Ulsan Maegwiak		처용 인형극 Cheoyong Puppet Show		2. 처용 비보이 Cheoyong B-Boy	
17:00~17:30	1. 처용판소리 Cheoyong Pansori		처용무 Cheoyongmu (Dance of Cheoyong)		처용 체조 Cheoyong Gymnastics		판소리서사극 "처용왕자" Cheoyong Epic theater 'Prince Cheoyong'	전시 / 체험 행사 세계음식 / 문화전시 푸드코트
17:30~18:00	2. 처용시노래 Cheoyong Song poems		1. 남구 특화 프로그램 - 댄스로빅 'Dancerobic'	전시 / 체험 행사 세계음식 / 문화전시 푸드코트	Experience Events & Other Events Food Court 11:00-22:00	전시 / 체험 행사 세계음식 / 문화전시 푸드코트	Experience Events & Other Events Food Court 11:00-22:00	
18:00~18:30	처용 체조 Cheoyong Gymnastics	전시 / 체험 행사 세계음식 / 문화전시 푸드코트 Experience Events & Other Events Food Court 11:00-22:00	2. 남구-마당극 "춤추는 고래마을" 'Dancing whale village'	Experience Events & Other Events Food Court 11:00-22:00	울주군 "와 아이라 고평이 굿" Wa Aira Gopuri gut (traditional rituals)	Experience Events & Other Events Food Court 11:00-22:00	Experience Events & Other Events Food Court 11:00-22:00	
18:30~19:00	동구 특화 프로그램 1. 전통무용 Traditional dance 2. 민요 Korean folk song		판소리서사극 "처용왕자" Cheoyong Epic theater 'Prince Cheoyong'	울프씨네마 월드뮤직 다큐멘터리 영화 UWMF Cinema World Music Documentary film /presented by IMZ 17:00-19:10	1. 처용판소리 Cheoyong Pansori	울프씨네마 월드뮤직 다큐멘터리 영화 UWMF Cinema World Music Documentary film /presented by IMZ 14:00-18:35-	울프씨네마 월드뮤직 다큐멘터리 영화 UWMF Cinema World Music Documentary film /presented by IMZ 14:00-18:35-	
19:00~19:30	동구 "일산 별산굿" Ilsan byulsin-gut (traditional rituals)		처용 체조 Cheoyong Gymnastics		2. 처용시노래 Cheoyong Song poems		처용 인형극 Cheoyong Puppet Show	
19:30~20:00			1. 처용마술 Cheoyong Magic		1. 처용마술 Cheoyong Magic		동구 "동구의소리" 'Sound of Donggu'	
20:00~20:30			2. 처용 비보이 Cheoyong B-Boy		2. 처용 비보이 Cheoyong B-Boy			
20:30~21:00			처용 인형극 Cheoyong Puppet Show		일본 니이가타 '소우-오도리' Niigata Soh-Odori, Japan			

# Arts Friend

## 공연·전시가이드

### PERFORMANCE

#### 제46회 처용문화제 및 제13회 울산재즈페스티벌

일 시 | 10. 4(목) ~ 10. 7(일)  
장 소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

■ 공연개요  
국제수준의 세계전통음악과 결합한 시민참여형 문화축제

■ 프로그램  
처용프로그램, 구·군 대표 프로그램, 해외자매도시공연 및 월드 뮤직페스티벌 등

#### 창작 현대음악의 밤

일 시 | 10. 9(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작곡가협회

■ 공연개요  
전자음악과 기존 악기의 결합, 영상과 음악의 결합, 무용과 음악과의 결합 등 음악과 타 예술과의 만남으로 청중들에게 보다 다양한 형태의 무대예술을 표현

■ 프로그램  
• 전자음악과 영상을 위한 환희  
• 무(舞)  
• 무용과 함께하는 음악 : 소리의 움직임  
•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올림" 외 3곡

#### <제32회 울산예술제> 서막 축하공연

일 시 | 10. 12(금)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공연개요  
제32회 울산예술제의 개막선언 및 축하공연

####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음악회

일 시 | 10. 13(토) 19: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바라합창단

■ 공연개요  
다문화 가정과 화합하고 소통하기 위한 음악회로 클래식과 가요 등 다양한 장르를 연주

■ 프로그램  
• 서울다문화 합창단 연주  
• 바라합창단 연주  
• 북다남성 중창단 연주

#### 제7회 (사)한국CAC실용음악연합회 정기공연

일 시 | 10. 13(토) 15:30  
장 소 | 야외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사)한국CAC실용음악연합회

■ 공연개요  
다양한 장르의 실용음악 공연을 통하여 생활음악의 대중화와 시민의 바람직한 여가활동의 신장 및 울산 실용음악의 발전방향을 제시

■ 프로그램  
• Rock'n Roll  
• Jazz, Blues, Pop  
• Folk/ Country  
• R&B/ Soul  
• Dance Music, 레게, 테크노, 발라드

####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하는 음악회

일 시 | 10. 14(일) 19: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R 30,000원 / S 10,000원  
주 최 | 남구여성단체협의회

■ 공연개요  
방송인 이다도시와 함께 울산출신 음악가와 국내 유명 성악가를 초청하여 음악회를 개최하여 수익금은 다문화가정 및 기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성금으로 사용

#### 김가현 플룻독주회

일 시 | 10. 14(일) 17: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김가현

■ 프로그램  
• Bach sonata e-moll BWV.1034  
• IL PASTORE SVIZZERO  
• DUETTINO HONGROIS Op.36  
• Fantaisie Pastorale Hongroise Op.26

#### 제11회 울산 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0. 16(화)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울산 가톨릭합창단

■ 공연개요  
거룩한 성음악을 통하여 교전음악의 세계를 널리 알림

■ 프로그램  
• Kyrie, Gloria, Jesu Christe, Credo in unum  
• Ave Maria  
• Maria Mater  
•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 청산에 살리라, 진달래 꽃

#### <제32회 울산예술제> 한국 가곡의 밤

일 시 | 10. 16(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공연개요  
제32회 울산예술제 중 울산음악협회 주관 공연으로 대중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 가곡으로 추억과 향수를 담은 음악회로 꾸민다.

■ 프로그램  
• 1부 울산의 노래 • 2부 애창가곡의 밤

#### 제17회 울산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0. 17(수)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 윈드오케스트라

■ 공연개요  
관악을 전공한 음악교사, 일반시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관악인들로 구성된 윈드오케스트라의 17번째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 고흥그리워 • 바우고개 • Graf Zeppelin March  
• Baritone • 산촌, 검은 눈동자 외 다수

#### <제32회 울산예술제> 제27회 울산무용협회 정기공연

일 시 | 10. 18(목)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공연개요  
제32회 울산예술제 중 울산무용협회 회원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공연

■ 프로그램  
• 전화영무 '그대와 나의이야기 I' - 김외섭(울산무용협회장)  
• 월하-전찬복, 최재임, 박문연, 오정임, 박현주, 김현정  
• 현대무용-Black out(안무-변은영)  
• 교방입춤-김영옥, 김정화, 김현정, 김라정, 김은지  
• 그리움-신세희(울산무용협회 고문)  
• 교방정고춤-이영아, 김영옥, 강정순, 박현주, 김현희  
• 발레

#### <제32회 울산예술제> 국악의 밤

일 시 | 10. 19(금)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공연개요  
제32회 울산예술제 중 울산국악협회 주관 공연으로 국악관현악 창작곡 및 울산을 주제로 한 곡들을 연주

■ 프로그램  
• 국악 관현악 "뫓으로 사는 세상"  
• 바리톤과 민요를 위한 국악 관현악  
-임진강 -경복궁 타령  
-배 띄우라 -박타령  
• 국악관현악 "공야의 숲결"  
• 소해금협주곡 "바람의 섬"  
• 국악 관현악 "아리랑 환상곡"



※ 공연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6회 (사)한국전통민요협회 정기공연

일 시 | 10. 21(일) 18: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R 50,000원 / S 20,000원  
 주 최 | (사)한국전통민요협회

### ■ 공연개요

울산12경을 창작소리극을 통해 더불어 가는 삶을 표현하여 만남과 교류·화합,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울산을 알리고자 함

### ■ 프로그램

- 태평가(가지산 사계)
- 산따라 물따라, 날리리애(간절곶 일출)
- 배 띄워라(강동·주전 해안 자갈밭)
- 궁초맹기(대왕암 송림)
- 창부타령(대운산 내원암 계곡)
- 우리비나리(무룡산에서 본 울산공단 야경) 등 12경

## <제32회 울산예술제> 연극협회 합동공연

일 시 | 10. 21(일) 16:00,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 공연개요

- 제 32회 울산예술제 중 울산연극협회 회원들이 '울산연극제' 출품작인 「이웃집 쌀통」을 공연
- 「이웃집 쌀통」은 아동성추행 부녀자 납치 살해 등 한국사회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공포를 오싹한 웃음으로 엮어 낸 연극

## 남구 구립교향악단 가족음악회

일 시 | 10. 23(화)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 남구 구립교향악단

### ■ 공연개요

클래식 및 합창음악을 통해 울산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지방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 프로그램

- 오케스트라 연주
- 바리톤 협연
- 합창단 협연
- 소프라노 협연
- 오케스트라 연주

## 제13회 남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0. 24(수)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 남구여성합창단

### ■ 공연개요

울산 시민 및 남구 주민을 위한 연주회로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곡들을 선곡하여 그 곡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이끌어가며 관객과 함께 하고자 함

### ■ 프로그램

- 사랑은 꽃보다 아름다워 • 붉은 노을
- 가을, DJ.DOC • Hit of abba
- 풍선 외 다수

## <제32회 울산예술제> 제17회 가을밤문학축제

일 시 | 10. 24(수)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 공연개요

제32회 울산예술제 중 울산문인협회 주관으로 시와 음악, 그리고 영상의 만남으로 꾸며지는 공연

### ■ 프로그램

- 오프닝 공연 : 색소폰연주 (권돌이)
- 낭송
  - 조경애-강 이사빈-아버지의 무릎
  - 박마라-길 위에서 길 찾다
- 초청가수공연
  - 빅정호-The river in the pines-Joan Baez 외 2곡
- 낭송
  - 권오정-비빔밥
  - 이영필-아파트 풍경
  - 박미자-감나무
- 오카리나연주
  - 김찬-패랭이꽃 외 2곡
- 낭송
  - 김은미-풍경
  - 장금철-그 버터 개에게 줘라
  - 안혜자-어머니를 닮은 꽃
- 초청가수공연
  - 박미연-가을편지 외 2곡
- 닫는 시 낭송 : 박명화-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김지철 작)

## 베르디 오페라 갈라콘서트

일 시 | 10. 25(목)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울산성악회

### ■ 공연개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및 리골레토의 중요 극 부분을 해설과 함께 연주

### ■ 프로그램

-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아! 그이었던가", "언제나 자유롭게",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지", "파리를 떠나서", "안녕 지난날이여"
- 리골레토 중 "이 여자나 저여자나", "그리운 이름", "여자의 마음", "저 하늘아래서", "이 천벌받을 놈들이"

## 울산예총 창작뮤지컬 "울산아리랑"

일 시 | 10. 26(금) 19:30, 10. 27(토)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 공연개요

울산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울산사람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고 따뜻한 가족애를 담은 휴머니즘 뮤지컬로 지역 예술인들이 출연하여 울산시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작품

## 무용, 시와 음악을 만나다 II

일 시 | 10. 26(금)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주 최 | 임연희무용단

### ■ 공연개요

1990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한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종해 시인의 "강물처럼"을 원작으로 한 작품

### ■ 프로그램

- 1장 : 색채의 정
- 2장 : 소리의 중
- 3장 : 움직임의 동

## 이현주 홍보가 완창발표회

일 시 | 10. 27(토) 15: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이현주

### ■ 공연개요

故 만정 김소희 명칭의 홍보가를 무형문화재 8호 이명희 선생으로부터 사사받아 완창

### ■ 프로그램

- 홍보가 초입
- 홍보가 박타는 대목
- 25현 가야금 산조
- 남도민요

## 2012년 울산광역시 청소년문화준 "아띠존"

일 시 | 10. 27(토) 16:00  
 장 소 | 야외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 공연개요

청소년 공연페스티벌 폐막행사

### ■ 프로그램

- 여는마당 : 축하공연 I
- 본 마당 : 2011 청소년문화준 영상 상영 문화준 폐막 퍼포먼스
- 닫는마당 : 함께하는 대동놀이 한마당, 축하공연 II

## 제7회 울산관악제

일 시 | 10. 28(일) 15: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관악협회

### ■ 공연개요

관악합주활동을 통하여 소리와 감정의 조화를 경험하고, 즐거움과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활동의 장 제공

# Arts Friend

## 공연·전시가이드

※ 전시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프로그램

- Amazing Grace, Light Cavalry Overture
- Blue Sky, Acsentium
- Ocean Breeze March, Swan Lake
- The High School Cadets, Where Eagles Soar
- Napoli Selection, Mexican Hat Dance
- Lassus Trombone, Mancini

### 2012 울산YMCA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0. 28(일)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 최 | 울산 YMCA 소년소녀합창단

### ■ 공연개요

울산 YMCA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로 어린이 합창의 맑고 깨끗함을 느낄수 있는 공연

### ■ 프로그램

- Three Contemporary Latin Settings 외 3곡
- 도라지꽃, 코스모스, MI'KMAQ HONOUR SONG
- YMCA 혼성합창단 공연
- 들국화, 치키타 바나나, If you try

## EXHIBITION

### <제46회 처음문화제>

#### 아시아 뮤직 네트워크 참가 전시

기 간 | 10. 4(목) ~ 10. 7(일), 4일간

장 소 | 제1전시장

주 최 | 울산광역시

### ■ 전시내용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오세아니아 지역의 음악페스티벌, 정부기관, 공공단체, 주요 공연장, 에이전시, 매니저먼트사, 음반사, 음악교육기관 등이 총 망라되어 아시아 음악의 공동 발전 및 유럽, 북미 등 주요 음악시장과의 교류 및 진출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국제적인 뮤직 네트워크의 관련 자료 전시

### 화이려 창립전

기 간 | 10. 3(수) ~ 10. 8(월), 6일간

장 소 | 제2전시장

주 최 | 화이려

### ■ 전시내용

서울산 새마을금고 유희동아리인 "화이려"는 항상 그림을 그리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유희기법으로 표현한 회원들의 다양한 그림 작품 40점 전시

### 울산중등미술 교육연구회 회원전

기 간 | 10. 3(수) ~ 10. 8(월), 6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울산광역시교육청

### ■ 전시내용

울산중등미술교육연구회 제17회 정기전으로, 회원개인의 창작활동의 결과를 전시하여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고 울산지역 중등미술 교사들의 화합의 장과 아울러 학교 현장의 미술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평면, 입체,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 50점 전시

### 울산외고산옹기협회 창립전

기 간 | 10. 3(수) ~ 10. 8(월),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울산옹기회

### ■ 전시내용

울산 무형문화제 제4호 옹기장의 옹기기능 후계자들과 울산 기능경기대회 옹기부문 수상자들의 모임인 울산외고산옹기협회의 창립전으로, 전국 최대의 옹기집산지인 울산의 전통옹기를 계승 발전시키고 울산옹기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옹기작품 90점 전시

### <제32회 울산예술제>

#### 울산미술협회 회원전

기 간 | 10. 10(수) ~ 10. 15(월), 6일간

장 소 | 제1,2,3,4전시장

주 최 |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 전시내용

제32회 울산예술제 기념행사 일환으로 마련하는 미술전으로, 울산시민과 미술애호가들이 미술 문화를 손쉽게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울산미술협회 회원들이 1년 동안 활동한 순수 창작 미술작품 200점 전시

### <제32회 울산예술제>

#### 울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

기 간 | 10. 17(수) ~ 10. 22(월), 6일간

장 소 | 제1,2,3,4전시장

주 최 |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 전시내용

제32회 울산예술제 기념행사 일환으로 마련하는 사진전으로, 울산시민들에게 순수창작 사진 예술의 감상 기회를 제공 하고자 울산사진작가협회 100여명의 회원들이 1년 동안 활동한 창작 사진작품 100점 전시

### <제32회 울산예술제>

#### 울산건축가협회 회원전

기 간 | 10. 24(수) ~ 10. 29(월), 6일간

장 소 | 제1,2전시장

주 최 |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 전시내용

제32회 울산예술제 기념행사 일환으로 마련하는 건축전으로, 울산의 건축, 도시,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울산 건축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시민들의

친근한 건축이미지 제고를 위해 울산건축가협회 회원과 건축 관련 학생 및 일반인이 1년 동안 활동한 패널 등의 건축작품 100점 전시

### 제15회 울산광역시 건축대전

기 간 | 10. 24(수) ~ 10. 29(월), 6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울산건축가협회

### ■ 전시내용

건축가로서의 자질과 경쟁을 유도하고 더 나은 건축물의 양산을 유도하여 지역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자 주니어와 시니어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 접수하며, 대상, 우수상, 특선, 가작, 입선 등으로 구분 심사하여 입상작품 200점 전시

### 이상민 울산의 풍경전

기 간 | 10. 30(화) ~ 11. 4(일), 6일간

장 소 | 제1전시장

주 최 | 이상민

### ■ 전시내용

울산광역시 인근에 있는 산, 바다, 들판 등 자연풍경을 화폭에 담은 구상작품 30점 전시

### 신진욱 서양화 개인전

기 간 | 10. 30(화) ~ 11. 4(일), 6일간

장 소 | 제2전시장

주 최 | 신진욱

### ■ 전시내용

순수 평면회화 위에 오브제를 가미한 입체적인 현대회화 작품 30점 전시

### 단계 김인숙 개인전

기 간 | 10. 30(화) ~ 11. 4(일), 6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김인숙

### ■ 전시내용

문인화 기법과 채색 기법을 접목시켜 태화강 주변의 자연을 표현한 문인화 작품 30점 전시

### 김난 한국화 개인전

기 간 | 10. 30(화) ~ 11. 4(일),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김난

### ■ 전시내용

문맹인들과 현대문화의 만남으로 생겨나는 문화적 충돌을 테마로 하여 현대인들의 내면세계를 관조하면서 소통과 적응을 소재로 창작한 한국화 작품 40점 전시

# 당신의 **블링블링**한 ART 스타일 완성!

## 회원의 종류

구 분	가입기준	연 회비	수혜인원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2인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 ~ 만 18세 이하	10,000원	1인
가족회원	한 가족	40,000원	4인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인 이상)	100,000원 (1인 추가시 10,000원)	가입인원

※ 청소년회원은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상 나이 확인

**회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여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비납부

- 인터넷 가입 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회원가입비(문화예술회관)
-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시 30% 할인  
(일반회원 2매, 청소년회원 1매, 가족회원 4매, 단체회원은 본인에 한함)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아트 클래스 등록 시 30% 할인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초대공연 시 초대권 우송
- 회원을 위한 음악회 개최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할인혜택 부여(일부 대관공연 제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http://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